

1.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 건가요?

한때 기독교 안에서는 "육체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여겨 화장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이런 궁금증들은 사실 저 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문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궁금해 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이론과 주장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졌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주장은 인간의 육과 영을 구분하여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다는 주장입니다. 육체는 유한하여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하여 이 영혼이 바로 죄의 주체이고 심판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온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영혼의 중요성과 우월성을 많이 강조해 온 반면에 육체는 죄의 도구가 되기 쉬운 존재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혼은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며, 이 영혼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지적, 도덕적 능력을 가지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육체는 절제와 금욕의 대상으로 영혼은 육체의 욕망과 욕구를 억제할 때 재기능을 한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궁금해 졌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분리는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지? 라고말이죠.

사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 다는 생각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경의 주요한 표현들이 아니라 헬라적 문화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와 영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영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말이죠. 구약에서 주로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쉬"라는 말을, 신약성경에서는 헬라어 단어 "프쉬케"를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네페쉬"는 단순히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체적인 존재(몸+생명+마음+정신)를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호흡하는 존재, 살아있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 "프쉬케" 또한 '숨'이나 '생명의

호흡'을 뜻하며, 생명력 또는 살아 있는 상태 즉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말하기보다, 분리할 수 없는 전인격적 존재로 말합니다. 인간 전체가 분리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간의 전인격적인 독특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합니다.

여타의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세상으로 만드는 능력도 그분과 소통하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뛰어난 지적 능력,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삶 그리고 선과 악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집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우리 인간의 독특성이 거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통해 이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은 단지 '영혼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기억 속의 모습 그 이상으로, 영화로운 몸과 완전한 존재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재회는 단지 "예전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된 존재들 간의 기쁨과 교제일 것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평소에 나는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었나요?

→ _____

- 인간을 전인격적 존재로 볼 때, 내 삶에서 육체와 영혼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 _____

-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바라볼 때,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 _____

-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영혼만의 생존이 아니라, 전인격적 회복이라고 할 때, 그 약속이 내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_____

-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활 후 만난다면, 지금과는 다른 어떤 모습과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육체와 영혼, 마음과 의지까지 전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 생각하며, 영혼만 소중하고 육체는 덜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으로 돌아가는 육체와 함께 살아 있는 전인격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독특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전인격적 존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날, 우리의 전인격적 존재가 회복되어 완전한 기쁨과 교제 안에서 함께할 그 날을 기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